

비빔밥·냉면도 1만원대...외식물가 5년새 25% 넘게 폭등

2020년比 광주 28.1%·전남 25.1% ↑
‘런치플레이션’ 서민가계 부담 가중
김밥 상승률 최고...자장면도 27% ↑
인건비·원재료 상승 복합요인 작용

비빔밥과 냉면 가격이 1만원대까지 상승하는 등 날이 갈수록 치솟는 외식 물가에 광주·전남 서민들의 가계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특히 최근 5년 사이 광주·전남 외식 물가가 평균 25% 이상 폭등하면서 심화되는 ‘런치플레이션’ (런치+인플레이션·점심값 상승)으로 인해 주머니 사정이 팍팍해지고 있다.

15일 한국소비자원 가격정보 종합포털 ‘참가격’에 따르면 지난 4월 광주지역 외식 주요 8개 메뉴(김밥·자장면·갈국수·냉면·삼겹살·삼계탕·비빔밥·김치찌개) 가격은 2020년 4월 대비 평균 28.1% 오른 것으로 조사됐다.

5년 사이 김밥(2천400원→3천400원) 가격은 가장 큰 폭인 44.2%나 상승했다. 이어비빔밥 32.9%(7천900원→1만500원), 냉면 32.1%(7천800원→1만300원), 자장면 27.8%(5천400원→6천900원) 등의 순이다.

전남의 경우 지난 4월 기준 8개 외식품목 가격이 같은 기간 대비 평균 25.1% 올랐다.

8개 외식품목 모두 2020년 4월 대비 가격 상승률이 15% 이상이었다. 이중 김밥이 29.6%(2천100원→2천722원)나 올라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이어 비빔밥 27.4%(7천111원→9천56원), 자장면 27.1%(5천333원→6천778원), 냉면 26.9%(7천444원→9천444원) 순이다.

다만, 김밥의 경우 가장 높은 상승률임에도 불구하고 지난 4월 기준 전국 17개 시도 중 유일하게 2천원대를 유지했다.

외식 비용이 급등한 것은 전기·가스로 인건비 인상 등과 함께, 지속된 원재료 가격 상승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호남통계청이 발표한 ‘4월 광주·전남 소비자물가동향’에 따르면 지난 4월 광주 지역 소비자물가지수는 116.76(2020년=100)로 전월 대비 0.2%, 전년 동월 대비 1.9% 각각 상승했다.

체감물가를 보여주는 생활물가지수는 식품 등에서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신선어개(118.35)는 전월과 비교해 1.2%, 1년 전보다 9.2% 상승했으며 신선채소(130.33)는 전월 대비 6.0% 하락했으나 지난해 같은 달과 비교하면 3.9% 올랐다.

전남지역의 지난 4월 소비자물가지수는 117.51로 전월 대비 0.1%, 전년 동월 대비 2.2% 상승했다.

생활물가지수는 119.99로 전년 동월대비 2.3% 상승했으며 1년 전과 비교해 식품은 3.2%, 식품 외는 1.6% 올랐다. ▶2면에 계속 /안태호 기자



후텋지근한 날씨 식히는 분수 비가 그치며 후텋지근한 날씨를 보인 15일 오후 광주 동구 5·18민주광장 분수대가 시원한 물줄기를 뿜어내며 시민들에게 잠시나마 시원함을 선사하고 있다.

/김애리 기자

광주 시내버스 노사 ‘시민 불편 나 몰라라’

‘勞 8.2% vs 使 2.5%’ 협상 결렬

무료 전세버스 투입·지하철 증편

姜시장 “공감·타협 보여달라” 호소

광주 시내버스 노사 간 교섭이 사후조정에서도 결렬돼 파업 장기화로 인한 시민 불편이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15일 광주시 등에 따르면 지난 13일 오후 2시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서 열린 광주 시내버스 노사 간 사후조정 회의에서 노조와 사측은 인상 안으로 각각 8.2%, 2.5%를 제시했다.

그동안 동결을 주장했던 사측이 처음으로 인상을 제시했지만, 회의 내내 노사 간 입장 차는 좁혀지지 않았다. 이에 전남지노위가 3%부터 협상 재개를 조건으로 파업을 중지하면 어떻겠냐는 안건을 제시했지만 끝내 합의는 이뤄지지 않았다.

노조는 당초 제시한 8.2% 인상이 수용되지 않으면 파업을 이어갈 수밖에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광주지역버스노동조합 관계자는 “시민들이

극심한 불편을 겪고 있다는 것을 왜 모르겠느냐”면서도 ““무노동 무임금”으로 싸우는 중인 만큼 절대 물러설 수 없다”고 밝혔다.

사측은 현재 운수 종사자 인건비 총액이 연간 1천700억여원에 달하고, 광주시가 이미 1천400억여원의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는 상황에서 2.5% 이상 인상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사측 관계자는 “여기서 임금을 더 올릴 경우 부담은 결국 시민들이 지게 된다”며 “노조는 당장 일터로 복귀해 더 이상 시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주말 동안에도 파업이 이어지면서 시민들의 불편과 피로감도 커지고 있다.

광주시는 16·17일 일부 노선에 대체 운행 수단으로 전세버스를 투입하기로 했다. 우선 계획된 노선은 순환01, 봉선37이며 투입 대수는 6대다. 해당 전세버스는 무료 운행한다.

광주시는 전세버스 기사의 원활한 운행을 위해 노선 안내 인력을 탐승시켜 혼선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광주시는 전세버스 투입과 함께 ▲24시간 대책본부 운영 ▲도시철도 12회 증편 ▲출·퇴근

시간 택시 운행 확대 및 공공기관 차량 부제 해제 ▲교육청 협조로 등하교 시간 조정 등 비상수송대책을 강화한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이날 오후 시청 브리핑룸에서 발표한 대시민 호소문을 통해 “시내버스 파업으로 인한 불편에 양해를 부탁드리며 한시라도 빨리 정상 운행이 재개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다”며 “노사 양측은 시민 앞에 힘겨루기가 아닌 공감과 타협의 모습을 보여줄 것을 요청드린다”고 노사 합의를 촉구했다.

이어 강 시장은 “합의 이후엔 시, 시의회, 노사, 전문가까지 포함한 적절한 논의 기구를 통해 버스 준공영제가 갖고 있는 어려움을 지혜를 모아 해결하길 호소드린다”고 말했다.

/변은진·장은정 기자

30도 웃도는 ‘무더위’ 지속

오늘까지 20-60mm 비 예보

이번 주 광주·전남 지역은 최고기온이 30도를 웃도는 무더위가 이어질 전망이다.

15일 광주지방기상청에 따르면 16일 정오까지 광주·전남 전역에 20-60mm의 비가 내리겠다. 비는 16일 오후부터 소강 상태에 접어들겠으며 이후 18일까지 무더위가 이어지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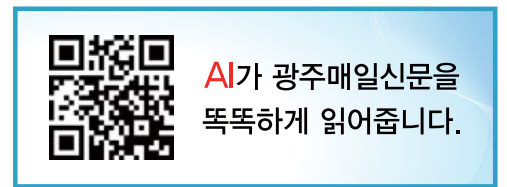
16일 광주·전남 최고기온은 화순·광양·구례가 29도로 가장 덥겠고, 나머지 지역은 20-28도 사이의 분포를 보이겠다. 17일은 담양·순천·광양·구례·곡성이 30도, 나머지 지역은 19-20도로 예보됐다.

전날보다 기온이 소폭 오른 18일 광주·전남 최고기온은 담양·화순·곡성이 32도, 나머지 지역도 27-31도 사이를 기록하며 매우 덥겠다.

광주지방기상청 관계자는 “16일까지 광주·전남지역에 비가 내리겠으며 대기 중 높아진 습도로 인해 당분간 무더위가 지속되겠다”며 “온열질환 예방에 각별히 주의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장은정 기자

Today	
밀리원초 강제동원·학살 진상규명 시급	6면
광주 아파트 전세·매매가격 상승곡선	12면
KIA 부하 걸린 불펜, 붕괴 도미노 조심	16면



AI가 광주매일신문을
똑똑하게 읽어줍니다.

전액 국비

광주디지털훈련센터 장애인 직업훈련생 모집

입학상담
☎ 062) 448-1188



▶ 훈련내용 : 디지털 일반과정

디지털 리터러시 (컴활2급준비반)	컴퓨터를 활용한 실무오피스 교육	디지털 영상편집	이미지 편집, 제작 및 영상 편집 기초교육
-----------------------	----------------------	----------	----------------------------

▶ 입학안내 및 지원사항

- ✔ 지원자격 : 18세 이상인 구직을 희망하는 등록 장애인
- ✔ 전형방법 : 입학선발평가
- ✔ 모집시기 : 연중 수시
- ✔ 훈련기간 : 1개월 ~ 6개월

▶ 훈련생 특전 : 훈련비 전액지원, 교재 및 실습재료 제공, 훈련수당 및 취업성공수당 지급

구 분	취업성공패키지(해당자에 한함)	취업성공패키지 비대상
취업성공수당	최대 1,500,000원	-
참여수당	최대 월 284,000원	최대 월 200,000원
교통비	최대 월 50,000원	

※ 훈련수당 및 취업성공 수당은 대상자 자격 요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광주디지털훈련센터